

전주국제영화제, 부문별 작품 수상작 발표

국제경쟁 1편 · 한국경쟁 2편

국제경쟁 '습한 계절' ... 한국경쟁 '갈매기' ·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 대상 수상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 단편경쟁 등 부문별 16개 작품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2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경쟁 부문에서 가오 밉 감독의 '습한 계절', 한국 경쟁 부문에서는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와 신동민 감독의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단편경쟁 부분의 경우 총 1040편의 역대 최대 출품작 가운데 25편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 끝에 한병아 감독의 애니메이션 '우주의 끝'이 대상(웨이브상)을 차지했다.

먼저 '습한 계절'은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 사는 젊은 네 남녀가 대기를 가득 메운 습기처럼 불통하며 얽히고설켜는 관계를 통해 중국 젊은 세대가 처한 문제의식을 화면 속에 담아 내려는 시도가 돋보인 영화다.

'갈매기'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중년여성 오복이 동료이자 재개발 대책위원장 기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의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을 담아 냈다.

또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는 아들의 시선에서 이혼한 엄마의 입장을 관찰하며 가족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국제경쟁 작품상은 클리리스 나바스 감독이 만든 '천 명 중의 단 한 사람'이, 심사위원 특별상은 루이스 로페스 카리스코 감독의 '그 해 우리가 발견한 것'이 선정됐다.

작년에 신설된 배우상은 배종대 감독 '빛과 철'의 염해란, 이태경 감독의 '과전: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의 오정세에게 돌아갔다.

또 CGV아트하우스상에는 한국경쟁작인 임승현 감독의 영화 '홀리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왼쪽부터 국제경쟁 대상 수상작 '습한 계절',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 '갈매기',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 한국단편경쟁 대상 수상작 '우주의 끝' (사진=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제공)

비경쟁 부문 상영작 중 아시아 영화 1편을 선정,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에서 시상하는 넷팩상은 푸시펜드라 싱 감독의 '양치기 여성과 일곱 노래'가, 코리아시네마와 한국경쟁작 중 다큐멘터리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다큐멘터리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인물 김순악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한 박문철 감독의 '보드랍게'에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경쟁 부문에 출품된 작품들은 형식부터 주제,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며 "관객 없는 영화제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상영을 결심한 감독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만드신 제작진 모두가 앞으로 코로나19 혹은 그 무엇에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등(燈), 밝히다' ... 박물관 어린이 상설교육

김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서 이달부터

김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燈), 밝히다'라는 주제로 박물관 어린이 상설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진행될 박물관 상설교육은 8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1시간 동안 교육이 운영된다.

'등(燈), 밝히다'라는 교육명으로 진행되는

상설교육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15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 교육생들은 전기가 없던 시절, 해와 달, 그리고 '등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스토리텔링 교육을 받은 후 청사초롱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된다.

신형순(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은 "박물관 상설교육을 통해 지역 거점 역사문화콘텐츠 교육공간으로 자리 매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개복단편영화제 성료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일환으로 열린 군산개복단편영화제와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민예술촌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거리사업인 '군산개복단편영화제'를 지난 5월 30일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과 뒤뜰에서 열었다.

이번 영화제는 정재훈 총괄감독 기획 당시의 하루가 한편의 영화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전국 총 200여 팀들이 접수해 50편의 본선 진출작을 가려냈다.

이번 영화제의 대상은 이아주 감독의 신발끈이 수상했으며 상장과 우승트로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군산=김관훈 기자

'명인명창' 등극

고창 모양 전국 국악대회 종합대상에 이정애씨



국악 명인·명창의 등용문인 '제11회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달 29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을 통해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악의 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1년째 고창시 열리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부로 나눠 판소리, 무용, 민요, 고법·기악·타악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악인들이 그간 갖고 닦은 실력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결과 ▲종합대상 이정애(목포시) ▲판소리부 박미자 ▲무용부 이영남 ▲민요부 김성부 ▲고법·기악·타악부 신현탁씨가 각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예술연구진흥원 서양수 이사장은 "대회가 재능있고 훌륭한 국악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 고도아카데미' 육성 추진

시·문화재청, 4일 개강 7월 16일까지 시민 대상 강의 지역의 세계 유산·고도 육성 관련 현장 답사 실시

익산시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북문화재연구원(원장 김규정)과 함께 오는 4일 '고도시민아카데미' 개강을 시작으로 익산 고도아카데미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도시민아카데미'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7주 동안 익산 시민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의 '마한 백제문화의 중심, 익산'을 비롯해 '고도육성사업의 기본방향과 현황 및 향후과제'(권점수 문화재청 사무관), '고도 익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박태건 시인), '익산불교미술의 가치'(김정희 원광대 교수), '경주 세계유산활용의 현황'(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해외고도유산의 활성화 사례'(안산호 원광대 교수) 등 고도 익산의 가치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익산과 공주의 세계 유산과 고도육성 관련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고도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익산 고도육성아카데미 사업은 '고도시민아카데미' 외에도 미취학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아카데미', 익산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고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고도 익산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홍보를 '다시 살아가는 미르'를 분기별 발간해 고도 익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고도 익산의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지난해 금마면 고도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고도시민아카데미'는 올해에는 익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교육을 실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한편 이번 '고도시민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익산 고도아카데미 육성 사업은 코로나 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과 연계한 익산 고도 보존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익산 시민이 고도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필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